

논문접수일 : 2012.12.20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5

도서지역 슬로시티 경관색채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Landscape Colors of slow city Islands in Korea

문 선 욱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Moon, Sun-Wook

Department of Space Design, Chungwoon university

* 이 연구는 2012년도 청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도서지역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
- 2.2 경관과 지역색채

3. 도서지역 슬로시티 경관색채 비교분석

- 3.1 도서지역 슬로시티 경관특성
 - 3.1.1 경관자원
 - 3.1.2 경관구조
 - 3.1.3 경관의미와 특성
- 3.2 지역색채 현황분석
 - 3.2.1 조망점에서의 원경색채
 - 3.2.2 자연환경색채
 - 3.2.3 건축경관색채
- 3.3 분석 종합평가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슬로시티 중 도서지역이라는 공통적 근원성을 갖는 증도와 청산도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색채를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하여, 지속적 슬로시티 경관형성과 보존을 위한 지역별 경관색채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 지역은 여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고유성에 의해 확연히 다른 지역색과 경관색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증도는 YR 그레이 계열의 동일 또는 유사 톤배색 조화로 주조색의 무채색계열에 채도가 강한 B가 지붕색으로 채택됨으로써 채도대비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바닷가의 열리고 시원한 이미지로 정돈된 경관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경관색채계획과 관리의 방향을 현재 사

용된 색채범위로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청산도는 섬 내부가 산촌지형으로 증도와는 다른 색채경관을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조화의 양상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무채색계열의 주조색에 채도 및 색상대비조화와, 증명도, 중채도의 G에서 YR에 걸친 색채범위에서 유사톤의 조화이다. 다만 기성 일반시가지의 색채환경이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므로, 슬로시티 특화지역에서 나타나는 색채팔레트를 적용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슬로시티, 경관색채, 지역색, 풍토성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tract and to compare local colors of Jeungdo and Cheongsando which are slow city islands in Korea those have common resources and to provide landscape color planning direction for sustainable slow city's landscape. Jeungdo and Cheongsando have equal or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but in the last analysis they show certainly different local colors and landscape colors by own's representative endemism.

Jeungdo has arranged cool and wide prospect view that is harmonious by same or similar combination of grayish YR and chroma contrast combination of achromatic colors of wall, floor with primary color B. From now on Jeungdo's landscape color planning and manage have to comply with the ranges of existing color environment.

Cheongsando is a slow city island containing diversity of landscape so it shows different landscape color from Jeungdo. There are two types of color harmony and coloration. In other words, those are chroma and hue contrast combination of achromatic colors and roof's primary color of YR, B and harmonious similar tone combination of middle brightness, middle chroma of G to YR ranges. However built-up area needs to be reformed by specialized slow city area's color pallet. because it shows disorderly color environment.

Keyword

slow city, Landscape Colors, Local Colors, Vernacula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경관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경관이나 관광자원 등에 집중되어 있고(주신하, 2008)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경관형성보다는 관리와 보존이 주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기본경관계획으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고 선언적인 수준에 국한될 소지가 있다(김중식, 유주은, 2009). 또한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이 상호위계와 연관성 없이 각 정부부처별로 각각 단기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상호관련성이 미약하다(신지훈 2010). 그리고 각 사업의 성격도 대동소이한 단순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어촌의 지역적 정체성을 살리는 경관형성과 관리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느낌의 철학에 기반을 둔 지역생활 문화로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과 전통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슬로시티에 관심이 모아지며, 지역 풍토의 다양한 어메니티를 보전,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슬로시티는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시조직 지키기를 강조한다. 즉 도시화의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삶의 수준을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가치로써 정신적 풍요와 여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내 슬로시티는 2007년도에 4개 지역이 최초로 국제 인증된 이후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슬로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태갑(2008)은 슬로시티 지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성을 존중한 경관의 매력창출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광측면 위주의 근시안적 활용에 앞서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선욱(2011a)은 슬로시티의 관광객 유치 정책이 자칫 보여주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경우 지역 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며, 우수한 정주공간이 곧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이 되는 주민 중심의 제도와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백두주(2008)는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지역들은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업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경관보존 직불제를 통해 경관농업을 실시하여 적극성은 보이나, 자체적인 경관관리 계획이나

실행이 진행되지 않아 슬로시티 특유의 경관관리는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차별화된 자원을 가지고 인증받은 슬로시티가 고유성을 잃지 않고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색채 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도서지역 슬로시티인 증도와 청산도의 경관 특성을 고찰하고, 현황색채분석을 통해 색채 지리학적 특징을 도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정체성 제고를 위한 도서지역 슬로시티 경관색채계획 및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전남 신안군 증도와 전남 완도군 청산도 두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지역은 2007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 인증 받은 국내 슬로시티 농산어촌 중 2개 지역으로 어촌과 연안 어메니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도서지역이다. 이는 유사한 자원 환경에 근원성을 둔 어메니티의 활용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하여, 특수한 환경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도서지역 슬로시티의 경관색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계획과 관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경관요소 중 환경색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고, 도서지역의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및 어메니티 자원으로써 지역의 경관과 지역색으로써 환경색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증도와 청산도의 경관자원 및 구조를 고찰하고, 경관의미를 도출하였다. 셋째, 증도와 청산도의 지역색채를 분석함으로써 두 지역의 고유성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증도와 청산도의 정체성 있는 경관색채계획과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서지역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

도서지역으로써 공간적 개념은 연안의 바다와 바닷가 어촌을 포괄하며, 지역에 따라 지형적·입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연안·어촌지역은 농산촌과 마찬가지로 자연 및 반자연공간이 양립하고 있으며,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고유의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정주 쾌적성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을 삼고 있다. 어메니티¹⁾ 자원은 도서지역을 포함한 연안·어촌에만 고유하게 분포하

1) 어메니티(Amenity)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의 쾌적성을 의미한다.

는 자연, 전통, 문화, 산업 등의 자원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편안함, 즐거움, 쾌적성을 제공하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내재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박상우, 2007).

도시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색채는 자연자원을 기초로 문화자원에 걸쳐 나타난다. 즉 도시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특성은 대부분 자연환경에 근원성을 두고 있으나 자원 그 자체만으로는 활용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양상이 방문자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가치와 유의성을 가져 지역주민보다는 방문자와 더 밀접하게 연계되는 속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바다'라는 입지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도시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경관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함께, 자원 그 자체만의 가치창출의 한계를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존의 접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러한 자원은 무제한적 활용이기보다는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슬로시티로써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재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결국 도시지역의 경관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재로써의 가치를 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원형경관(2)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활용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경관과 지역색채

세계 각 지역은 각기 다른 토양과 문화를 지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기후풍토에 맞는 재료들이 환경에 조화되어 오랜 세월이 걸쳐 자연스럽게 경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경관 속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지역성을 지역색이라 한다. 즉 배색에 있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특정색을 주조색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 한 지역에서 공통적인 색계열로 확실하게 지각되는 기초색을 지역색이라고 할 수 있다(박돈서, 2002). 프랑크 H. 만케는 지역색의 발전단계를 그 지역의 문화와 밀접하고 자연에 더욱 가까울수

2) 원형경관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본원적으로 내재되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심상, 사상과 종교, 인간의 경험 등 원형적 심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각화되는 문화적 산물 및 자연의 구조와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개발,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과 사상, 신념 등의 변질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변형되고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강영은, 최동욱, 홍성희 정윤희, 김상범, 임승빈, 2009).

록 단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개인적인 개성이 표현되면 지역성과 풍토성은 낮아지는 반면 문화적인 영향과 매너리즘 단계에서는 지역성이 반영되고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 아래 집단적 무의식의 단계는 습관적이며 무의식적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거의 필연적인 색채로써 지역색은 상징적 언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문은배, 2002).

도시지역 지역색채의 중요한 자연적 요소로는 지형적 특성이다. 즉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파랑색 계열이 많고 열린 경관으로 전체적으로 시원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문선욱, 2011b). 또한 토양의 색채는 건축물과 구조물 색채의 바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지역에 식생하는 수목에 따라 차별화된다. 그리고 일조시간, 청명일수 등 태양의 일조량의 차이에 따라 색채반응이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지역색이 달라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역마다 세워지는 건축물은 저마다의 지역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할 때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어(박영순, 이현수, 김현선, 2005) 쾌적한 도시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경관에서 나타나는 지역색은 건축물 등 인공물에 대한 색채의 과용과 남용으로 부조화된 색채환경으로 구성되어 두드러지는 지역색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원형경관을 회복하여 이를 토대로 마을 전체가 풍토에 맞는 통일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관색채를 형성·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도시지역 슬로시티 경관색채 비교분석

3.1 도시지역 슬로시티 경관특성2)

3.1.1 경관자원

신안군 증도는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갯벌염전과 소금창고로 쓰였던 건축물을 개조한 소금박물관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갯벌과 염전, 그리고 습지가 공존하는 자연의 생명을 담은 슬로시티로 인정받고 있다. 천혜의 서해갯벌에 의한 국내 최대 갯벌염전, 갯벌생태전시관, 해안사구, 소금박물관, 짱뚱어다리, 태양광 발전소, 송원대 해저유물발굴해역,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등의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다.

완도군 청산도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전통적인 섬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나지막한 지붕, 끝

2) '문선욱(2011), 국내 슬로시티의 경관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3)'내용을 연구자에 의해 재정리함

없이 펼쳐지는 낮은 돌담길, 구들장 논, 고인돌, 초분, 옛날식 다방 등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푸른 바다와 어촌마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례인 풍장, 전복과 해삼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해녀는 매우 독특한 무형 문화재라 할 수 있으며, 섬 전체가 하나의 전래동화책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청산도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섬 내부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어촌과 산촌의 경관자원을 동시에 가진 융합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영화촬영지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표 1] 도서지역 슬로시티 경관자원

구분	내용	이미지
신안군 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 갯벌염전 - 해안사구 - 소금박물관 - 갯벌생태전시관, - 송원대해저유물발굴해역 - 짱뚱어다리 - 엘도라도리조트 -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 슬로푸드 : 천일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해변, 진산해변 - 슬로푸드 : 전복, 마늘 - 서편제, 봄의왈츠 촬영지 - 상서마을 돌담길 (등록문화재 제279호) - 다랭이논, 구들장논 - 초분(장례문화) - 고인돌·하마비유적지 - 범바위 - 독청, 초어단지, 해녀 	

3.1.2 경관구조

신안군 증도는 육지로부터 증도대교를 건너 지점이 거점으로서 게이트로써 인식된다.



[그림 1] 증도 경관권역과 축

염전권역을 둘러싸는 환형주축과 섬 전체를 순환하면서 5개의 서로 다른 컨셉의 관광 보행축을 가지고 있다. 섬지역임으로 전체 경관의 경계가 명확하다.

경관권역은 천일염전과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하는 염전권역, 송원대 유물해역과 기독교사의 성지인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를 포함하는 역사문화권역, 짱뚱어다리를 건너 해변을 따라 조성된 숲길과 생태전시관, 현대식 경관의 엘도라도 리조트를 포함한 리조트 권역, 대초마을, 장고마을의 민박촌을 끼고 있는 갯벌도립공원을 포함한 갯벌권역이 권역별로 그 의미와 상징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섬 내부에는 3개의 공식 조망점을 갖고 있다.

완도군 청산도의 경관축은 환형주축과 방사형의 소로주축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리해변-대봉산, 도청항-대선산-고성산-보적산, 원동리-매봉산-상서리, 읍리-보적산-범바위 등의 4개 등산코스, 도청항을 시점으로 향길+동구정길+서편제길섬, 연애바탕길, 낭길, 범길, 들길+용길, 들국화길+돌담길의 남쪽의 연속된 6개의 관광보행축이 있다.

권역으로는 지리·진산·신흥을 끼고 있는 해안주거권역, 청산면의 게이트역할과 행정·상업의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청항 중심권역, 대봉산 대성산·고성산·대성산을 북쪽으로 병풍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산촌주거권역, 고인돌·하마비·초분 등 역사유적과 서편제·봄의 왈츠 등 촬영지가 입지한 역사문화권역, 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만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도서지방의 돌담인 강담 마을과 구들장논의 상서마을권역, 보적산과 범바위를 중심으로 범바위 권역의 6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청산도 경관권역과 축

3.1.3 경관의의미와 특성

신안군 증도는 천일염이라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산체계가 증도의 고유 가치를 표현하며, 경관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완도군 청산도 역시 지형과 기후에 따른 구들장논, 다랭이논 등 생산계 경관이 두드러진다. 한편 두 지역 모두 역사문화의 많은 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써 이야기가 있지만 각각의 스토리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성격도 달라 파편화되어 현재는 문화경관으로의 점적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의미와 상징 주제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의미화된 경관을 형성해야 한다.

[표 2] 국내 도서지역 슬로시티의 경관특성 개요 (슬로시티 중점경관 여부 ●:중점 ○:일반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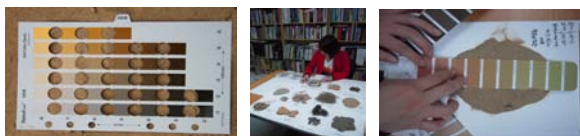
	경관의 자원				경관의 이미지		경관의 의미			
	전통산업 및 특징	경관유형	자연 생태계	생산 인공계	생활	조망점 경관	물리적 경관형성 특징	정서적 자원의 주제	정서적 경관형성 특징	
신안군 중도면	갯벌염전	농어촌	●	●	○	○	갯벌 염전경관	지역의 천일염산업 부각	신안 보물섬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각 정서적 주제는 시대적으로 연속되거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단편적
완도군 청산면	구들장논, 다랭이논, 강담	농산어촌	●	●	○	●	구들장논, 다랭이논, 전복양식장	농산어촌의 융합된 경관	장례문화 서편제, 봄의왈츠 촬영지	전해오는 풍습으로 옛 정서를 느낄 수 있음.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는 장르도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므로 단편적임

3.2 지역색채 현황분석

지역색 현황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는 2011년 9월~10월에 맑은 날 오전 11시~2시 사이에 시행되었다. 조사분석 도구는 NCS 색채시스템에 의하였으며, 현장에서 NCS 색표집을 견주어 눈으로 비교해 보는 육안측색조사법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통해 컴퓨터로 색을 추출해 내는 디지털 촬영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촬영은 Sigma 18-250mm F3.5-6.3DC HSM와 Sigma 24-70mm F2.8 EXDG 렌즈의 Canon EOS 500D기종에 의하였다.

조사 분석 시 경관이 지닌 색채특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지역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미지와 색채 채료 샘플들을 표집하였다. 그 과정은 현장의 장소에 대하여 모든 색채 채료 샘플들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현장 단계와 현장에서 채취한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종합하는 스튜디오 단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색채 채료 샘플 수집이 어려운 것은 색표본을 이용하여 기록하였고, 그와 같은 색조를 재현해 색채를 목록화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NCS 색채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들은 대표성이 높은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로 선정하여, 컴퓨터 모자이크 분석법을 통해 가장 넓은 부분의 점유율이 높은 색으로 현황 팔레트를 추출하여 지역색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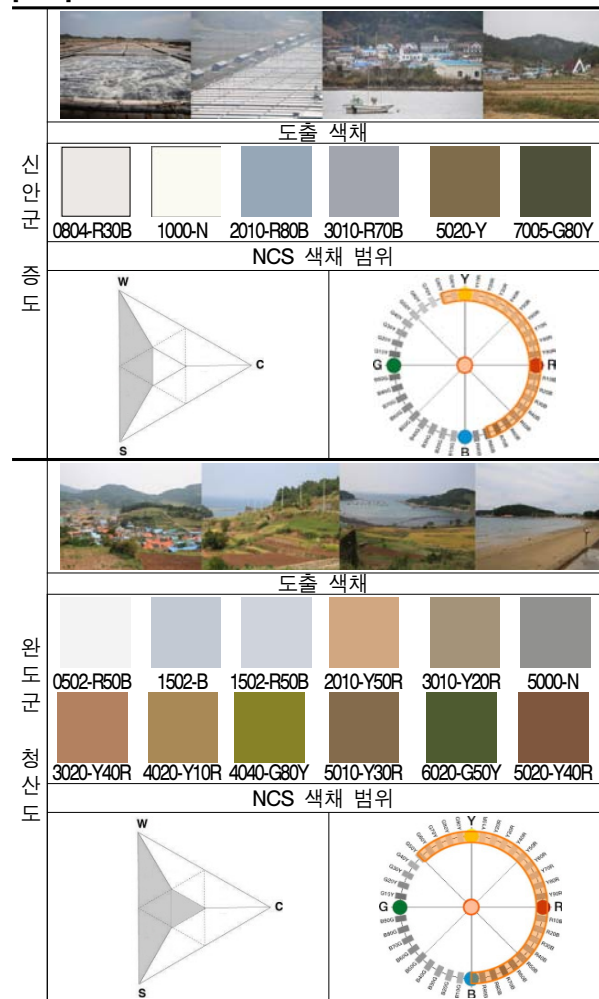
[그림 3] 현장 색채자료기록과 스튜디오에서의 분석

3.2.1 조망점에서의 원경색채

조망점에서의 원경색채는 건축물과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두드러진 특색과 지배적인 색채특성을 밝힐 수 있다. 중도의 경우 앞서 경관의 미와 특성에서 언급되었듯이 갯벌 천일염 생산체계가 경관의 정체성으로 부각되어, 갯벌과 염전의 무채색과 그레이쉬의 Y~RB계열이 기초색으로 배경이 되며,

건축물들을 포함하여 마을이 전반적으로 기초색과 유사한 무채색계열의 경관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조망점에서의 원경 색채분석



반면 청산도의 경우 해변의 모래, 구들장논, 다랭이논 등 산지형 생산체계의 토양이 산화철이 많이 함유된 붉은 황토빛의 YR계열과 수목의 GY계열, RB의 바다색이 기초색을 이루고, 중명도, 고채도의 순색계열의 YR, B의 지붕색이 두드러져, 중도에 비해 색상이 다양하고 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두 지역의 차별화된 토양의 색채는 배경색인 기초색이 되어 뚜렷한 이미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3.2.2 자연환경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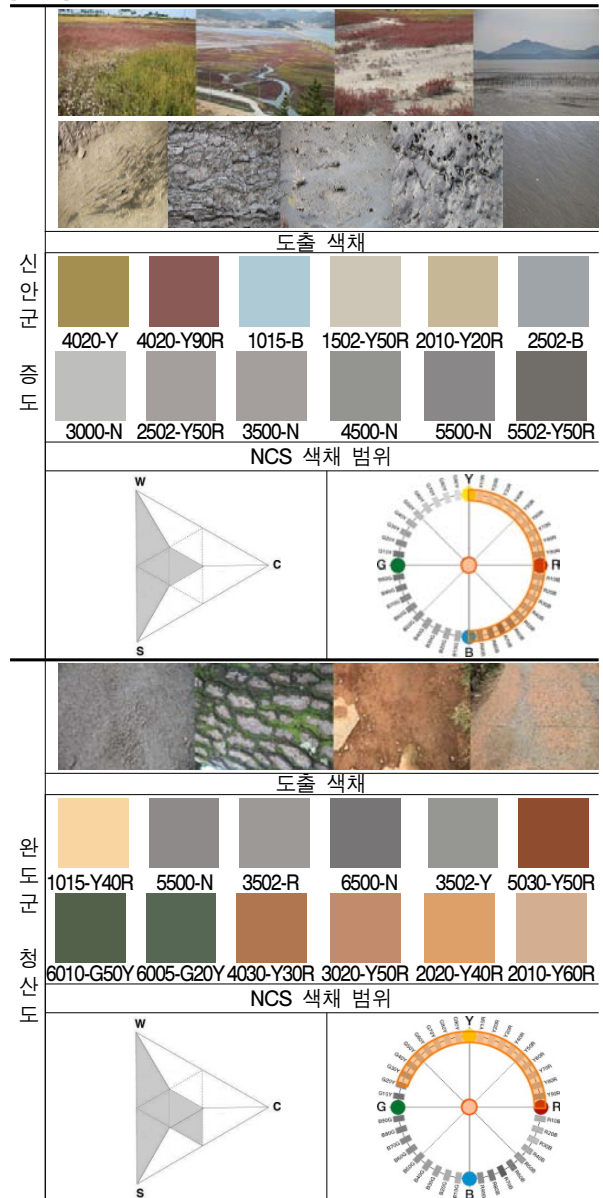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ippe Lenclos, 2009)는 '색채지리학'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며, 지역의 자연과 기후 등에 기초한 풍토색으로 각 민족의 색채관련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의 토양은 지역에서 바로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루기도 쉬워 건축재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사용되면서 토양색은 지역색의 바탕이 되고 있다. 순수한 상태의 흙은 본질적으로 알루미늄의 수산화규산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흰색을 띠지만, 산화철, 망간, 구리와 같은 다른 물질들과 쉽게 혼합되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화한 혼합물들은 녹색, 파란색, 회색, 노란색, 빨간색, 갈색을 만들어낸다. 특히 산화철은 흙의 색을 결정하는 주성분으로 그 함유량에 따라 노란 황토색, 붉은 황토색, 베이지색, 모래빛 등 광물성 색조를 광범위하게 나타낸다(장 필립 랑클로, 노미니크 랑클로, 2009). 한편, 자연환경의 색채 중 빛과 식물, 물, 하늘 등 변화하는 자연 풍경으로 말미암아 경관이미지는 색채에 움직임을 부여하여 활기를 갖게 된다. 특히 빛에 의한 경관색채이미지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정오의 빛은 푸른 기미를 보이며, 아침과 저녁에는 붉은 기미를 띤다. 겨울은 여름보다 색의 강렬함이 훨씬 약해지고 노란기운을 띠며 차가운 색조로 바뀐다. 또한 다양한 식물들은 봄과 가을에는 꽤 넓은 범위의 색조를 보여주는 반면, 여름에는 색채범위가 줄어들어 녹색계열에 한정되고, 잎에 의한 그림자로 더 짙은 녹색을 띠게 된다. 겨울에는 그레이계열과 딥톤의 갈색이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 색채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9월~10월의 가을철 같은 시점에서 두 지역의 자연환경색채를 비교분석하였다.

증도의 자연환경 색채는 무채색 계열의 회갈색 갯벌과 지역의 대표적인 자생종인 붉은 색 합초를 비롯한 식물의 색채인 GY, Y, R계열의 색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YR, B계열이 나타났다. 이들 색상은 토양은 주로 저채도, 고·중명도에 많이 나타났고, 식물은 중·고채도, 저명도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청산도는 소나무숲 등의 식생으로 완도에 비해 G 계열쪽으로 이동하여 G~YR까지 나타났다. 특히 토양은 해변의 무채색 계열의 YR색상의 모래빛과 중명도 고채도의 YR색상의 붉은 황토 등 다양한 색조의 색채가 보이고, 원경이미지에서와 같이 증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교적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자연환경 색채분석



3.2.3 건축경관색채

지붕, 벽, 바닥 색으로 이루어지는 지배적인 건축 색채는 눈에 보이는 마을 공간의 많은 부분을 나타내며 '주조색의 범위'로 지칭된다(장 필립 랑클로, 노미니크 랑클로, 2009). 특히 지붕은 시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체적인 풍경에 배색효과로써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 별도로 팔레트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로 바닥의 색은 건축물이 있는 장소에 접근할 때 처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사실상 바닥 재료와 색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과 전체적인 경관을 완성하는 데 영향을 주므로, 경관이미지의 픽셀 분석작업에서 유효하도록 처리하였다.

(1) 슬로시티 특화지역

중도의 슬로시티 특화지역에는 기능에 충실한 역청을 바른 목재 벽체의 소금창고와 석조로 된 소금박물관이 대표적 건축물로 증명도의 저채도 YR계열이다. 신안보물섬 박물관 등은 Dark톤의 YR계열의 색채가 주조색이며, 이와 유사한 증명도 톤의 YR계열 동일색상의 색채가 보조색이다. 특히 지붕, 벽, 바닥의 색이 유사색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붕과 벽의 색이 건축물의 지배적인 색채를 결정짓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과 창문, 창틀, 토대와 기둥과 같은 세부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강조되어 완성된다. 중도 슬로시티 특화지역의 건축물은 화이트 또는 원색의 R, B 등을 창틀, 기둥에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지역 풍토색과 대비되는 배색조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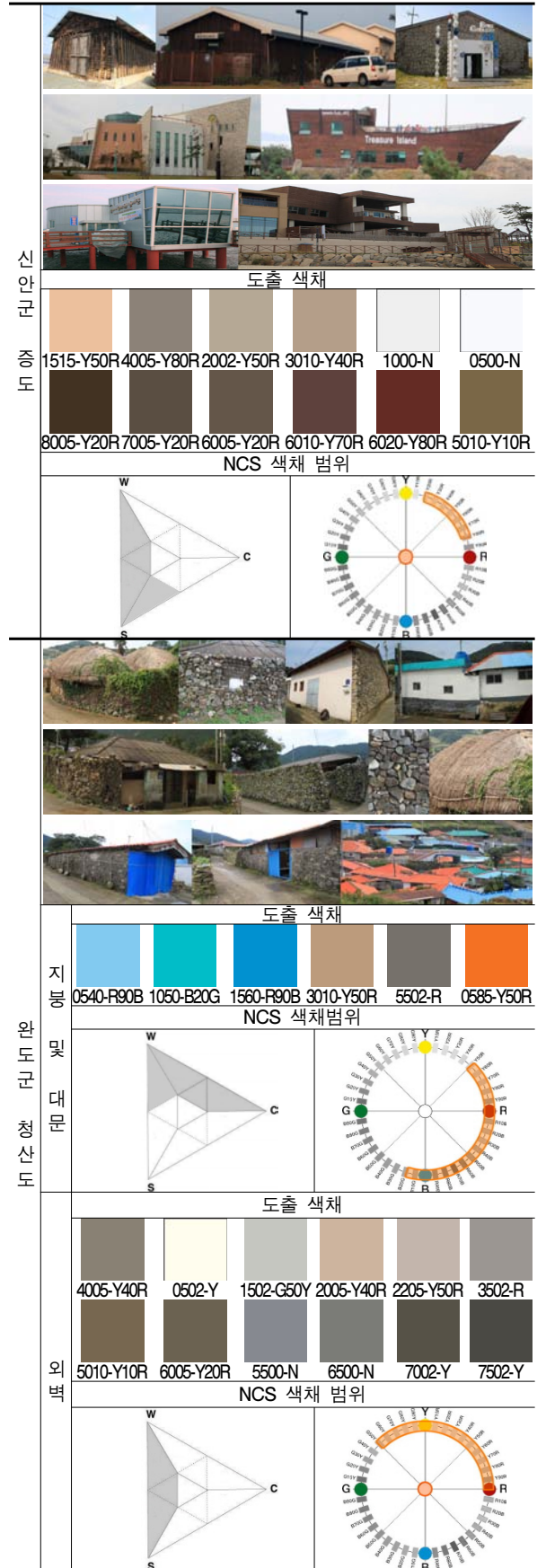
청산도는 남해의 도서지역에서 나타나는 증명도 무채색계열의 돌담과 중·고명도, 저채도의 Y~YR계열의 초분과 흙바닥이 주조색이며, 철재 위 페인트 마감한 고채도의 Blue색상의 대문과 초가에서 개조된 증명도, 고채도의 YR, BG, B의 다양한 색상의 지붕색이 두드러져 주조색, 보조색과 채도대비되고 강조되어 보인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원색 사용과는 달리 지붕의 다양한 색채는 고채도라 하더라도 채도의 단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질서있고, 다이내믹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움으로 보인다.

(2) 슬로시티 이외의 일반 기성 시가지지역

중도 읍내지역의 주거는 대부분 화이트 계열의 벽체이며, 마을의 도로바닥 포장 역시 고명도의 무채색 계열의 시멘트 마감으로 인위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역전반에서 무채색계열을 버네칼러 색채가 반영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농어촌 주택은 지붕개량 운동에 의한 지붕의 색채가 다양한 원색이 나타나는 반면 증도는 강조색 효과의 YR 또는 R색상의 띠를 두른 Blue계열을 전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바다와 조화되는 통일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 한옥 및 최근 신축된 펜션과 주택에서 YR계열의 벽체와 Black계열의 지붕을 사용하여 또다른 배색유형을 보이나 자연 속의 수목이나 기존 마을의 색조와 유사하여 어우러지는 배색이다.

청산도 읍내지역의 건축물은 콘크리트 벽체에 페인트 도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뉘앙스의 붉은 벽돌조가 대부분이다. 즉 증명도, 중·고채도의 R계열 벽돌조, 페인트 도장에 의한 고명도 중·고채도의 YR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슬로시티 특화지역과는 달리 슬래브 지붕으로 별도의 지붕색을 갖지 않거나, 아스팔트 싱글 등 Black계열의 지붕색도 보인다. 그

[표 5] 슬로시티 특화지역 건축색채 분석



러나 그 외, G, BG, B 등의 다양한 색채도 나타나

배색이 어색하고, 간판 등의 색채 또한 질서요소를 갖지 못해 다소 산만한 경관색채를 보이고 있다.

3.3 분석 종합평가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 슬로시티인 증도와 청산도 현황색채분석을 통해 색채 지리학적 특징을 도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경관색채계획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원경의 색채에서 증도는 전반적으로 순색량 20이하로 채도가 낮으며, 다양한 명도단계를 보이는 그레이쉬 톤의 G80Y~R80B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청산도는 증도에 비해 순색량이 40정도까지 높아져 채도는 다소 높고, 명도는 검정색량 60이하로 밝게 나타났다. 청산도의 색상분포는 증도에 비해 G 또는 B쪽으로 더 확대되어, 지명에서 나타나는 선조들의 푸른빛 지향 아날로지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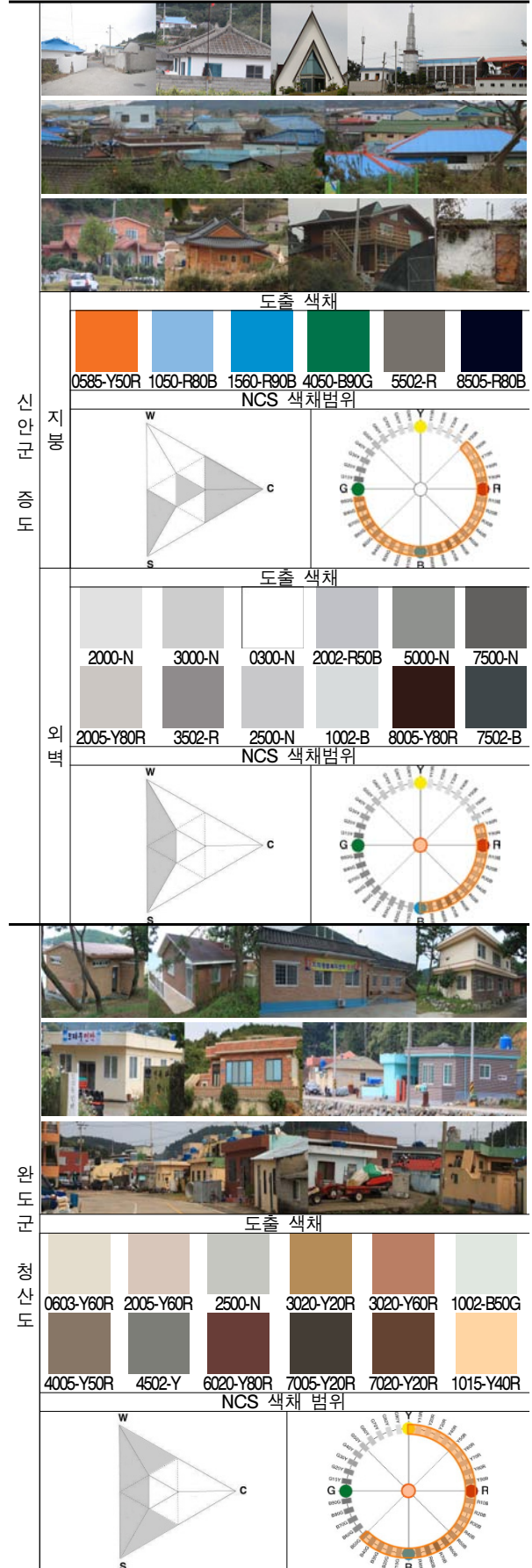
자연환경의 색채 역시 원경의 색채와 유사하였으며, 다만 근경에서 느껴지는 자생초본 및 목본류의 색채로 말미암아 두 지역 모두 순색량이 다소 많아져 색채는 중채도 범위까지 넓어짐을 보였다. 색상은 증도의 경우 원경의 색상보다 Y에서 R쪽에 가까워지고 B도 나타나지만 위낙 채도가 낮아 색기미가 완연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청산도의 색상은 원경에서 보이던 B계열은 드물게 나타나고 G계열쪽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결국 두 지역의 자연환경 색채는 원경에서 바라보던 이미지에 비해 채도가 다소 높아지고, 색상은 증도는 B쪽으로, 청산도는 G쪽으로 확대된다.

건축경관색채분석에서는 먼저 슬로시티 특화지역의 경우 증도는 YR색상의 저채도 그레이쉬 계열과 딥톤의 색채범위에서 유사 또는 동일 조화의 배색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산도는 강담 돌의 색채인 무채색과 YR 및 B계열 원색의 대문, 지붕으로 색상대비, 채도대비를 보여준다.

일반 기성시가지 건축물 색채에서 증도는 갯벌의 토양색에서 나타났던 무채색 계열이 건축물의 벽체, 도로 포장, 담장에서 다양한 단계의 명도로 나타나며, 여기에 원색 B계열의 지붕색이 대비되며, 청산도와는 달리 순색의 YR은 일부 띠형태로 강조색으로만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바닷가의 시원하게 열린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편 증도의 최근 축조된 건축물들은 슬로시티 특화지역에서 나타나는 색채범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청산도는 다양한 색채와 재료로 질서요소를 찾기 어려워 다소 혼란한 경관색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통해 경관색채계획과

[표 6] 일반 기성시가지 지역 건축 색채분석



관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증도는 슬로시티 특화지역의 자연 깃벌에서 얻어진 저채도의 YR 그레이쉬 계열과 다양한 밝기의 무채색을 전반적인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보조색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톤으로 배색한다. 그리고 강조색으로는 딥톤의 YR과 함께 기성시가지에서 채도대비조화로 나타났던 순색의 B를 사용하여 현재 증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관색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청산도는 증도와는 달리 섬 내부가 산지지형으로 산화철 함량이 많은 붉은 토양색을 풍토색으로, 어촌의 특성과 함께 산촌 생산계 경관의 색채에 의한 두 가지 배색 유형을 제시한다. 즉 증도도의 무채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저채도의 GY~R을 보조색으로, 순색의 YR~B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채도 및 색상 대비조화를 보이는 첫 번째 유형과 G에서 YR의 색상에 걸쳐 증도, 증채도 색채범위에서 유사톤으로 배색하는 두 번째 유형을 제안한다. 다만 증도와는 달리 기성 일반지역의 색채환경이 무질서한 모습이 나타나므로, 제안된 배색유형을 적용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결론

W. H. Ittelson가 주장했듯이 지역의 이미지가 분명하여 정체성이 나타날 때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고 하였다(박돈서, 1996).

슬로시티의 경관계획은 지역의 민속적, 버네쿨러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통 생활방식에 의해 고유한 의미가 부여되고 이미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경관색채는 새로운 계획이 아닌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의해 형성된 지역색을 고찰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로시티 중 도서지역이라는 공통적 근원성을 갖는 증도와 청산도 두 지역의 지역색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각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슬로시티 경관형성과 보전을 위한 경관 색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서지역 슬로시티로 지정된 두 지역은 여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고유성인 깃벌과 산촌토양이라는 확연히 다른 풍토색을 갖고 다른 경관 색채를 보여준다. 이에 근거하여 깃벌의 그레이쉬 계열을 주조로 바닷가의 시원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증도 경관색채방향과, 산촌의 색채특성으로부터 도출된

증도, 증채도의 G~YR까지 넓은 색상범위에서 유사톤 배색과 강한 강조색을 갖는 채도 및 색상대비조화 배색 등 청산도에서는 두 가지 배색조화 방향을 제시하고, 부조화된 기성시가지들 이에 정합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간과 계절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으므로, 지역색으로 차별화된 경관색채 형성과 관리를 위해 향후 현장에서의 더욱 심도 있는 장기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은, 최동욱, 홍성희, 정윤희, 김상범 & 임승빈 (2009). 원형경관의 개념 정립 및 형성요인 연구. 『농촌계획』, 15(4), 33-42.
- 김충식,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5(3), 11-22.
- 문선욱 (2011a). 국내 슬로시티의 경관특성 및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3), 11-20.
- 문선욱 (2011b). 지역색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4), 51-58.
- 문은배 (2002). 色土不二. 『色色가지 세상』. 도서출판 국제.
- 박돈서 (1996). 『건축의 색·도시의 색』. 기문당.
- 박돈서 (2002)., 도시환경의 색채, 『이제는 색이다』. 도서출판 국제.
- 박상우 (2007),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연구-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창출전략」. 국토연구원.
- 박영순, 이현수 & 김현선(2005). 『도시환경과 색채』.안그라픽스.
- 백두주 (2008).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111-140.
- 송태갑 (2008). 슬로시티 지정지역의 경관관리, 『리전인포』. 전남발전연구원.
- 신지훈 (20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의 도입방안 연구. 『농촌계획』, 16(4), 77-86.
- 장필립 랑클로 & 노미니크 랑클로, 이승희 외 2인 역 (2009), 『환경 건축 그리고 색』. 미진사.
- 주신하 (2008).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연구. 『농촌계획』, 14(4), 77-86.